

## HEADLINE NEWS

### 월드컵대비 「관광부」 신설로 ‘도시 마케팅’ 본격 돌입 (동경)

일본 東京都는 2002 월드컵을 대비하고, 향후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올해 4월 「관광부」를 신설하고, 올 여름에 「호텔세」를 도입키로 했다. 都는 이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현재의 2배인 연간 60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都가 신설키로 한 관광부는 기존의 관광산업과를 격상시킨 것으로, 현재의 16명에서 40명으로 인원을 대폭 보강할 방침이다. 관광부는 앞으로 월드컵을 맞이해 東京을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본지 제36호 「관광진흥비용조달 위해 ‘호텔稅’ 도입 추진」 (동경) 기사 참조)

都는 또한, 호텔 투숙객을 대상으로 호텔세를 징수해, 외국인관광객들을 위한 안내표지판과 관광안내소를 대폭 증강하는 데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都는 월드컵을 맞이해 24시간 운영하는 ‘외국어통역서비스센터’와 동경역 및 하네다공항 등 교통의 결절점에 숙박시설·교통수단을 안내하는 ‘임시관광정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인터넷에서도 예약이 가능하도록 호텔을 가격대별로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국제회의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日本經濟新聞, 2002. 1. 12)

## HIGHLIGHTS

### 도시관리

- ① 도시재개발사업을 민간주도로 가속화 (동경)
- ② 옥외광고전광판 설치 강력 규제 (로스앤젤레스)
- ③ 「용도지역조례」 전면개정 위해 주민의견 수렴 (시카고)

### 도시환경

- ④ 디젤차, 都廳 납품차량으로 이용 금지 (동경)
- ⑤ 대기환경 개선 위해 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 (북경)

### 도시교통

- ⑥ 교차로내 정지차량에 벌금 부과 (런던)
- ⑦ ‘버스우선정책’ 효과 가시화 (영국: 에딘버러市)
- ⑧ 동서와 남북을 각각 잇는 광역철도 건설 추진 (런던)
- ⑨ 도심교통수단으로 전기스쿠터 이용 장려 (로스앤젤레스)

### 사회복지

- ⑩ 대규모 공공장소에 응급소생장비 설치 (로스앤젤레스)
- ⑪ 승객편의 및 장애인이동권 제고한 버스 도입 (교토)

### 행재정

- ⑫ 세계 대도시별 외국인거주자 생활비 비교조사 (홍콩)
- ⑬ IC카드를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 모색 동경 都(차카와市)



### ① 도시재개발사업을 민간주도로 가속화 (동경)

일본 東京都는 시가지 재개발사업계획을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지체되는 도시재생사업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都는 재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민간사업자를 ‘사업협력자’로 선정, 오피스 및 주택비율, 점포 구성 등의 재개발계획을 민간주도로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도심재개발사업은 地主들과의 조정 및 협상에 시간이 많이 걸려 사업계획의 확정에서부터 착공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따라서 都는 민간주도 방식의 재개발사업이 시간을 단축하고, 都의 재정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지 제33호 「민관파트너십을 통한 도시빈민가 재개발사업 추진 (뉴욕)」 기사 참조)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첫 번째 재개발사업은 총사업비가 2,000억엔 정도로 예상되는 新橋지구의 환상 2호선 지구 시가지재개발사업으로, 약 8ha의 부지에 폭 40m, 연장 1,350m의 간선도로와 초고층오피스빌딩 및 고층맨션 등을 조성하게 된다. 都는 공개모집에 응한 민간개발업체의 사업계획을 심사한 다음, 오는 5월에 사업협력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都는 앞으로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장조사를 하거나, 주택 배치 및 슈퍼마켓 유치 등 재개발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都는 향후 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구획정리사업에도 사업협력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日本經濟新聞, 2002. 1. 17)

### ② 옥외광고전광판 설치 강력 규제 (로스앤젤레스)

미국 로스앤젤레스 市의회는 주거지역과 공동생활구역이 광고전광판의 불빛 때문에 여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광고전광판을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옥외전광판(Billboard) 현황 조사를 市검찰청과 市건설국에 지시했다. 또한, 市의회는 전광판 설치를 억제하기 위해 기존의 전광판을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매년 일정액의 수수료를 市에 납부토록 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한편, 새로운 전광판 설치를 금지하는 조례 제정도 고려중이다. (Los Angeles Times, 2002. 1. 17)

### ③ 「용도지역조례」 전면개정 위해 주민인견 수렴 (시카고)

미국 시카고市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1957년 제정한 이래 부분적으로만 수정해온 「용도지역조례 (Zoning Ordinance)」를 전면 개정키로 하고, 현재 시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있다. 市가 중점을 두고 있는 조례 개정목적과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지역의 부동산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주차문제를 유발하는 신규개발의 억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비주거 용도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 등을 포함한다. 둘째, 보다 편리한 상업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근린상업지역을 확대하되, 보행자 안전 및 교통문제 유발 방지를 위해 보다 엄격한 주차 진출입 규정을 모색한다.

셋째, 도시의 활력을 증진하고, 보행자에게 친근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건물 1층 벽면처리, 주차 진출입, 공개공지, 가로환경 조성 등에 관한 상세한 지침을 수립한다. 넷째, 다양한 교통수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철역 및 버스정류장 주변에 복합용도를 군집(群集)시키고 건물로의 편리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모색한다. 다섯째, 환경친화적인 조향을 도입하기 위해 대규모개발지역에 자전거주차장 등 환경적 요소를 적용하고, 건물녹화를 위한 다양한 조향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시민들이 조례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도면을 인터넷상에 올리고 매뉴얼, 지침, 예시 등 다양한 자료를 첨부한다.

([www.ci.chi.il.us/Mayor/Zoning/ordin\\_1.html](http://www.ci.chi.il.us/Mayor/Zoning/ordin_1.html))

### 4 디젤차, 都廳 납품차량으로 이용 금지 (동경)

일본 東京都는 매연이나 질소화합물 등 유해가스의 배출량이 가솔린차보다 많은 디젤차를 都廳 납품차량으로 이용하는 것을 오는 4월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都는 앞으로 1차 위반업체에 서면으로 경고하고, 이후 또다시 위반하게 되면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벌칙을 과할 방침이다.

都는 2001년도부터 관련업체들을 대상으로 납품시 이용차량의 목록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디젤차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해왔으나, 2002년도부터는 물품구입계약서에 가솔린차나 LPG차, 천연가스차 등 디젤차 이외의 차량을 이용할 것을 명기하도록 의무화했다. 단, 都가 지정한 배기가스정화장치나 산화촉매제를 장착한 디젤차는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都가 최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1년 7~9월의 都廳 납품차량은 1,439대이며, 이 중 157대가 디젤차라고 한다.

(日本經濟新聞, 2002. 1. 17)

### 5 대기환경 개선 위해 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 (북경)

중국 北京市는 대기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부유입자상 물질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밝혀짐에 따라, 올해 부유입자상 물질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市당국은 부유입자상 물질에 의한 오염도가 높은 이유로, 환경 기준에 미치지 않는 구식 엔진을 사용하는 차량과 석탄 사용량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北京의 석탄 사용량은 연간 2,200만톤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市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 강철 생산량을 200만톤 줄이고, 연기 및 수증기의 탈황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四環路 내에 있는 공장 40곳을 교외로 이전할 방침이다. 市는 이러한 대기환경 개선 노력을 통해 올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10만톤 감소시키며 동시에, '1일 대기오염지수'가 2급 이상을 기록하는 날씨가 올 한해 동안 55%(2001년도 50%)를 넘도록 할 계획이다.

(인민망 일본어판, 2002. 1. 8)

### 6] 교차로내 정지차량에 벌금 부과 (런던)

영국 런던市는 앞으로 교차로내에 정차하고, 적신호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최소 8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市는 이를 위해 향후 2년 내에 폐쇄회로카메라를 교차로에 설치하고, 교차로 정체시에 반대편 교차로 구간에 적정한 진입공간이 없는데도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단속키로 했다.

그 동안 교통전문가들은 교차로내 정차가 주된 교통혼잡요인 중의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버스의 정시운행을 방해하고, 긴급대응이 필요한 구급차량의 통행을 저해한다고 지적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벌금부과 계획에 대해 운전자협회가 격렬하게 반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The Urban Transportation Monitor, 2001. 10. 26)

### 7] ‘버스우선정책’ 효과 가시화 (영국: 에딘버러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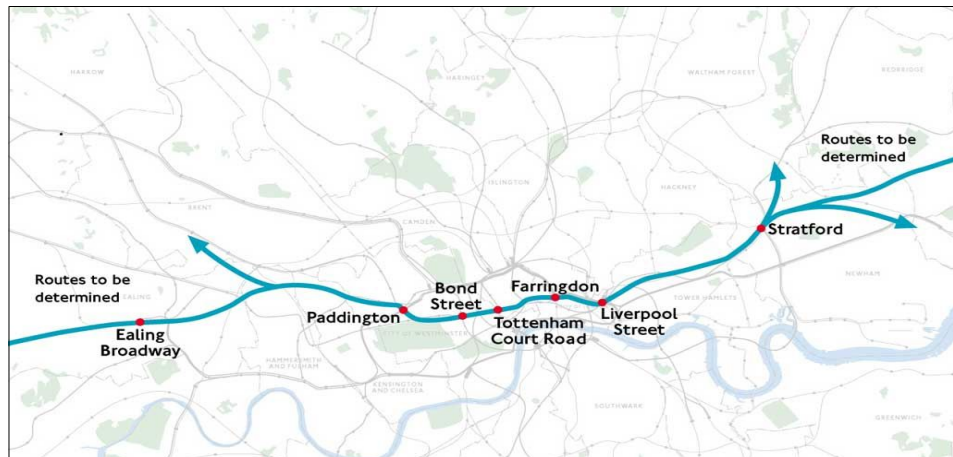
영국 에딘버러(Edinburgh)시의 A90도로는 도심과 외부를 연결하는 1.6km 길이의 간선도로로, 그 동안 극심한 교통혼잡이 빚어졌던 곳이다. 市당국은 이러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이 일대를 대상으로 2000년 8월부터 ‘버스우선정책’을 실시해왔는데, 최근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표 참조). 버스우선정책은 크게 ‘버스전용차로제’, ‘지체관리시스템’, ‘Park-and-Ride’의 3가지 프로그램으로, 2단계에 걸쳐 시행되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오전 첨두시 도심 접근시간이 최고 50% 가량 감소했고, ‘Park-and-Ride’를 이용하는 승객은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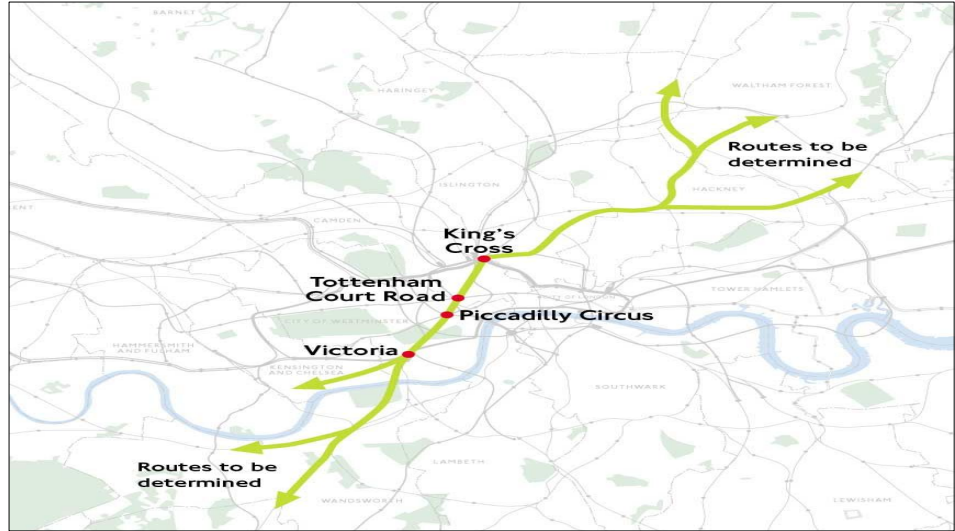
(Local Transport Today, 332호, 2002. 1. 17)

		from North to City-Centre	from South to City-Centre
Bus	before	21min	23min
	after	11min	17min
Car	before	21min	21min
	after	19min	17min

### 8 동서와 남북을 각각 잇는 광역철도 건설 추진 (런던)

영국 런던市는 21세기 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동서와 남북을 각각 잇는 광역철도(Crossrail)를 설치키로 하고, 최근 이 크로스레일의 노선안을 결정했다(아래 노선도 참조). 市는, 민관공동투자(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으로 추진중인 이 계획이 런던의 경제 성장과 지역 재개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졌던 동서와 남북축(軸)을 연결하기 때문에 현재의 교통혼잡도를 상당히 완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www.thetube.com)





### 9 도심교통수단으로 전기스쿠터 이용 장려 (로스앤젤레스)

미국 로스앤젤레스市는 최근 개발된 전기스쿠터를 도심통근자들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市교통당국은 이를 위해 혼잡한 대중교통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통근자들에게 올해 4월부터 시범적으로 수십 대의 전기스쿠터(Scooter)와 전기자전거를 대여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전철이나 버스를 타기 위해 환승역이나 버스정류장까지 1~2마일 정도 자가용을 운행하는 통근자들에게 전기스쿠터나 전기자전거를 저렴한 대여료를 받고 빌려주고, 1년 6개월 정도 이용한 통근자에게는 전기스쿠터를 무상으로 양도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환승역과 환승주차장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환승역의 한달 주차료는 20달러 정도인데 반해, 스쿠터의 한달 대여료는 10달러여서 통근자들이 자가용 대신 스쿠터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추진하게 되었다. 市는 500대의 전기스쿠터와 전기자전거를 구입하기 위해 최근 캘리포니아州에 36만8천 달러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市가 현재 도입을 검토중인 '진저(Ginger)'라는 스쿠터는 가격이 3,000달러 정도 되며, 시속 17마일 정도의 속력을 낸다.

(Los Angeles Times, 2002. 1. 12)

### 대규모 공공장소에 응급소생장비 설치 (로스앤젤레스)

미국 로스앤젤레스市는 동물원이나 컨벤션센터, 공항 등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를 일으킬 것에 대비, 심장충격기(Defibrillator) 20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심장충격기는 심장마비가 일어났을 때 전기충격으로 심장을 정상적으로 박동하게 하는 의료장비이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장마비가 일어날 경우 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1분 경과할 때마다 소생할 확률이 10%씩 감소하게 된다고 한다.

市는 이 의료장비를 소화기처럼 유리로 된 칸막이 안에 설치, 유사시 숙련된 공무원이나 일반인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市는 앞으로 1,000대의 심장충격기를 공공장소에 설치하고, 4만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용법을 훈련시킬 계획이다.

(Los Angeles Times, 2002. 1. 18)

### 승객편의 및 장애인이동권 제고한 버스 도입 (교토)

일본 교토市는 「누구나 자유롭게 · 안전하게 ·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승객,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승하차하기 편리한 버스를 도입해 운행하고 있다. 市가 도입한 버스를 살펴보면, 먼저 「논스텝(Nonstep) 버스」(사진 上)는 승객들이 승하차하기 쉽게 승강구의 계단을 없애고 바닥을 낮게 한 버스로, 현재 12대가 운행중이다.

「리프트장착버스」(사진 下)는 휠체어를 탄 채로 버스를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휠체어용 스텝 리프트를 장착한 버스로, 현재 21대가 운행중이다.

「도시형 저상(低床)버스」는 일반 버스에 비해 차바퀴의 직경이 작은 '편평 타이어'를 장착함으로써 바닥을 낮게 해 승하차를 용이하게 한 버스로, 현재 11대가 운행중이다.

([www.city.kyoto.jp/kotsu/welfare/welfare.htm](http://www.city.kyoto.jp/kotsu/welfare/welfare.htm))



<논스톱버스>



<리프트장착버스>

### 세계 대도시별 외국인거주자 생활비 비교조사 (홍콩)

홍콩시가 세계 주요 7개 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활비 지출규모를 비교조사한 결과, 7개 비교대상도시 가운데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도시는 東京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뉴욕, 런던,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타이베이순(順)이었다. 생활비 지출규모는 홍콩을 기준으로 할 때, 東京은 홍콩보다 34%, 뉴욕은 24%, 런던은 16% 더 컸으며, 싱가포르는 홍콩보다 10%, 상하이는 17%, 타이베이는 29%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주거비는 뉴욕이 가장 높았으며, 홍콩은 주거비와 잡비 부문에서 2번째로 높았다. 홍콩시는 이러한 외국인거주자 생계비 비교조사를 앞으로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www.info.gov.hk/gia/general/200201/24/0124133.htm](http://www.info.gov.hk/gia/general/200201/24/0124133.htm))

### IC카드를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 모색 (동경都: 타치카와市)

일본 東京都 타치카와市 등 타마 지구의 5개 市는 2002년 3월부터 시민들이 IC카드를 이용해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나기市를 제외한 4개 市는 주민표(住民票)나 인감증명서를 어느 市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의 실현을 목표로 운용노하우를 축적 중이다.

(日本經濟新聞, 2002. 1. 18)